

도자기 빚고 조개도 잡고 ... “한 해 1만명 넘게 찾지요”



최재원·문향순 부부가 작업장에서 학생들이 도예체험에 사용할 도자기를 건조하고 있다.

■ 함평 '기산 도예체험장' 운영 최재원·문향순 부부

함평읍 함평군청에서 9km가량 떨어진 돌머리 해수욕장. 최재원(59)·문향순(56)씨 부부는 서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수욕장 입구 언덕배기에 '기산(箕山) 도예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험장과 가스 가마가 놓인 작업장, 도예 전시장, 살림집이 1천980㎡(600여 평) 대지에 한데 어우러져 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최 대표는 지난 91년 6월, 20여 년간 몸담았던 교직을 떠났다. 직업과 생활을 일시에 바꾼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고 아내를 비롯해 주위의 반대도 심했다. 마지막 근무지가 소규모 도자기 공장만 400여 개에 이르는 도자기 고장인 경기도 여주였던 터라 자연스럽게 도예사업에 뛰어들었다.

높이가 1m 가량인 특대 크기의 백자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 한때 여주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다.

그러다가 최 대표는 사업을 정리하고 95년 고향인 함평으로 터전을 옮겨 도예와 교육의 경험을 살려 폐교인 함평 나산면 서초등학교에 도예 학습장을 꾸몄다. 당시로서는 전국적으로 폐교를 활용한 첫 사례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후 도예 학습장을 운영하면서 체험시간이 짧고 이와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20년간 몸 담았던 교직 떠나 도예사업 시작

돌머리 해수욕장 입구 작업장·전시장 갖춰

“학생들에 ‘도예+갯벌체험장’ 마련 보람”

2000년 현재의 자리로 옮긴 후 도예체험과 돌머리 해수욕장의 갯벌을 활용한 갯벌체험을 결합하게 됐다.

그 결과 2003~2004년의 경우 한해 1만2천여명이 찾은 정도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최 대표는 “보고, 듣고, 느껴보고, 만져보는 오감(五感)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체험학습이 전국화돼 학생들의 선택여지가 넓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최 대표 부부는 학생들이 찾지 않는 시간에는 체험 프로그램에 사용할 다양한 도예재료를 만든다. 저금통으로 사용하는 복숭아모양 그릇과 꽃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병이나 봉어·복숭아·나비·오리 모양의 그릇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건조시킨다.

198㎡(60평) 규모의 체험장에는 탁자마다 점사에 붓질이 가지런하게 놓여있다. 체험을 온 학생들이 크롬(Cr) 안료를 사용해서 도자기에 글씨나 그림을 그리면 최 대표 부부가 유약을 발라 1천260도의 가마에서 굽는다.

전시장에는 ‘함평천지 늪은 물이 광주고향을 보려하고...’로 시작되는 호남가(湖南歌)가 쓰인 대형 백자 항아리가 눈에 띈다. 20kg들이 쌀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부인 문향순씨는 “이전에는 출근하면 혼자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항상 같이 있어 부부에도 깊어졌죠. 나산에 살 적에는 겨울철이면 자주 감기에 걸렸는데 바닷가로 이사 온 후로는 감기가 아예 없어졌습니다”라며 활짝 웃었다. 밀물 때 파도가 부서지며 발생하는 음이온 덕분이라는 것. 하루 일을 마치고 마당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도 일품이란다.

문 대표는 “자연과 함께 숨 쉬고, 생활하며 몸도 구속되지 않아 마음이 편합니다. 학생들에게 학습의 장을 만들어주며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체험장 운영과 함평 예술인연합회 회장을 맡아 동봉서주하는 바쁜 생활속에서도 ‘남겨놓을 만한’ 도예 작품에 대한 꿈에 가슴에 꼬옥 품고 있다.

글·사진 = 송기동기자 song@/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학생들이 초록색 물감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놓은 도자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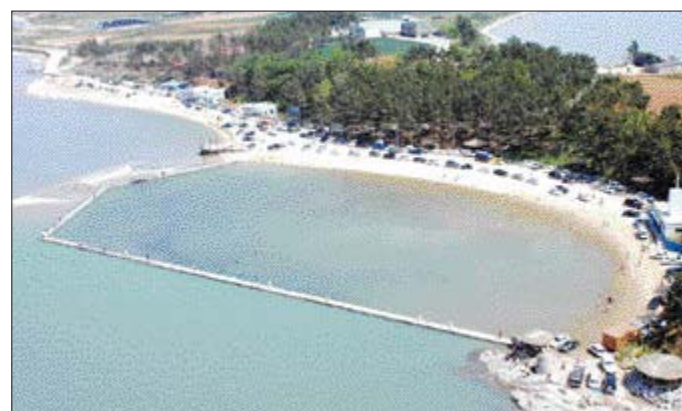
1982년 개장 ... 인공풀장서 뱀장어 잡기 대회 인기

■ 돌머리 해수욕장은

함평읍 석성리 석두마을에 위치한 돌머리 해수욕장은 지난 1982년 개장했다.

이 마을은 1789년 옛 문헌에 ‘돌두리(夏頭里)로 표기돼 있으나 1912년 행정구역명에는 ‘석두(石頭)로 바뀌어 있다. 돌두(夏頭)는 돌머리란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마을 서편 1km 지점에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돌머리 해수욕장은 400여m에 이르는 백사장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절경을 자랑한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7천920㎡ 크기의 인공 풀장이 조성돼 있으며 초가 원두막 23동과 야영장 등의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7월 초~8월 말 개장 기간중에는 인공풀장에서 뱀장어 잡기 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피서철뿐만 아니라 연말에 일몰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는 이들이 많다.



또 갯벌에는 게, 조개, 해초류가 많아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수원 문화소품 및 최고상권!

명품 펠리스 타워

승용차부터 1억4000만까지 다양한 임대차량
●후환지구 최저분할가 33㎡당 1,400만원부터

구분	면적	분할가	보증금
1호	33㎡	1,400만원	1,000만원
2호	44㎡	1,800만원	1,300만원
3호	55㎡	2,200만원	1,600만원
4호	66㎡	2,600만원	1,900만원
5호	77㎡	3,000만원	2,200만원
6호	88㎡	3,400만원	2,500만원
7호	99㎡	3,800만원	2,800만원
8호	110㎡	4,200만원	3,100만원
9호	121㎡	4,600만원	3,400만원
10호	132㎡	5,000만원	3,700만원

펠리스 타워 분양사무실 ☎010-7723-1033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저탄소형 에어컨·냉장고

저탄소식 순간 전기 보일러 온수기

●신형, 온수, 급냉, 급열, 해빙

●에너지효율 1등급, 무연, 무소음, 무진동, 무진탕

●기동률 대비 60~80% 절감효과

모델	용량	연비	에너지효율
3000L 15kW	15kW	1.00	1.00
4000L 20kW	20kW	1.00	1.00
5000L 25kW	25kW	1.00	1.00
6000L 30kW	30kW	1.00	1.00
7000L 35kW	35kW	1.00	1.00
8000L 40kW	40kW	1.00	1.00
9000L 45kW	45kW	1.00	1.00
10000L 50kW	50kW	1.00	1.00

080-909-0088
010-9469-9373